

##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 會議內容 概括

Dorothy Anderson

IFLA UBC사무국장

이번 IFLA 서울大會에서 IFLA史上 새로이 나타난 특징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처음으로 東洋地域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主題 “圖書館資源과 國家發展—東西에 있어서의 東洋資料의 利用과 統制”에 관련하여 순전히 專門의인 측면에서 論文發表와 討議를 위한 會議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大會主題를 좀 더 東洋的인 면으로 돌려서 東西洋 圖書館人의 經驗을 반영시키기로 한 것이다. 동서양 도서관에 共通된 特徵을 주제의 논거로 정하고, 그 實情을 살피고 技術的인 면으로 세분하여 연구하고 토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동양국가의 出版物과, 이에 대한 동서양에서의 取扱와 統制를 비교하며 동서양 圖書館利用者의 도서관에 대한 要求를 비교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야심적인 主題였다. 一週日간의 대회기간을 통해서 그 實情에 대한 알찬 성과를 얻었으며 또 유감스럽게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다. 圖書館資料의 出版者와 生産者를 이번 大會에 참가대표와 주제발표자로서 초청하지 못했던 것이 꼭 아쉬웠던 점이다. 그들이 출판한 최고작품은 會議場 뒤편에 마련된 出版物展示場에서 접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들이 생산해낸 出版物과 그 內容活用의 改善方案을 토의한 이번 大會에 출판자도 함께 참가할 필요가 있었다. 출판자와 도서관의 목적은 결국 책을 독자의 손에 넣어주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同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서관인으로서 改善된 統制方法을 고찰하거나 모색할 때는 출판자도 그 자리에 참가하도록 초청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의 實像은 일부는 보이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노출되었다. 이를 입증해 준 이번 大會의 發表論文은 이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內容을 자세히 담고 있는 훌륭한 것이었다. 이 논문들은 앞으로 많은 記事에 인용될 典典資料가 될 것이며 “서울大會論文集”은 많은 書誌와 目錄의 參考 및 引用資料가 될 것이다.

대회기간 중에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圖書館人들이 東西洋에서의 資料蒐集, 組織 및 利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두 지역 도서관인의 目的과 趣旨가 同一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했다. 발표된 논

문과 토의사항을 통해서 볼 때 가장 뚜렷이 나타났던 점은 자료의 蒐集과 統制, 利用은 連鎖되어 있어 서로 區分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통제는 흔히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 斷切된 것이 아니라 수집 및 이용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Harvard-Williams교수는 基調演說에서 情報는 國家資源으로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開發되고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좋은 國家圖書館體制의 存立理由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주제에 관한 全體會議 I에서는 NATIS의 일반개념부터, 한국의 경우와 같은 特殊要件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國家圖書館體制에서 國立圖書館이 어떻게 指導의 役割을 하고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거론되었다. 그러나 “개발도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비평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모두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圖書館人으로서 혹은 圖書館體制 안에서 모두 개발도상 상태에 있으며 또 개발도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資源面에서 볼 때 그 단어는 이번 토의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동의했다.

대부분의 참가대표가 出版界와의 의견교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全體會議 II에서였다. 資料蒐集에 관한 토의에서는, 모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료구입난은 어느 정도까지는 出版物의 特殊性과 실지로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했다.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統制 및 記述의 技術的인 面은 蒐集에 관한 문제와 밀접하다는 것이 뚜렷해졌다.

專門會議 A는 國家書誌에 관하여 토론함으로써 앞서 진행된 全體會議 I, II와 연관되며 앞으로 있을 專門會議과 관련되었다.

IFLA UBC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會議가 意思疏通 補助道具로서의 國際基準의 根本目的을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國際基準이란 國家書誌機關에 강요하지 않는 그러나 그 機關이 받아 들이며 또 받아 들일 수 있는 基準을 뜻한다.

UBC體制確立은 국가적 기여도에 달려 있다 하겠다. 그리고 국가서지기관이 人名形態와 같은 書誌問題의

自體解決方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주 반복되었다. 이 점에 관한 토의는全體會議에서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資源, 熟練技術 및 書誌問題에서 국가를 인도할 人力專門家가 있는 國立圖書館을 포함한 統合된 國家圖書館體制的 필요성을 재차 반영하였다. 專門會議 B에서는 “編目”에 관해서 토의했으며 “編目”이라는 말의 좁은 해석이 빨리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舊 目錄規則과 Tanabe씨가 그의 발표논문에서 제의한 바와 같이 目錄의 目的을 새로이 규명할 시점에 도달했으며, 서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著者名接近方法에서, Tanabe씨와 Oda씨가 제의한 것처럼, 書名을 통한 예전의 東洋式接近方法으로 환원될 수도 있다 하겠다. 이 회의에서 주제발표자 El-Hagrassy씨와 Elrod씨는 ISBD(M)의 문제와 로마자 아닌 다른 문자에서의 적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뒤에 진행된 토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SBDs 및 AACR와 같은 목록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東洋出版物의 특정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東洋文體 및 言語에 따른 出版物의 書誌記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제의도 있었다.

專門會議 C에서는 利用者와 이용자의 要求, 그리고 동서양 도서관에서 어떻게 司書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며 圖書館奉仕의 가치와 좌절을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淸취했다. 여기에 한 동양지역 대학도서관

사서가 언급한 바를 부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금요일의 마지막 專門會議에서는 翻字 혹은 로마字 表記의 근본문제를 증점적으로 다루었으며, 활발하고 광범위한 토의사항을 Elrod의장이 各국 대표를 위하여 훌륭하게 요약해 주었다. 주제발표자의 한 사람이었던 Lo씨가 말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으나 컴퓨터가 翻字危機를 문제의 淸점으로 올려 놓는 데에 淸매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淸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Oda씨는 사용되고 있는 로마자표기법 사이에 혼동이 있는 문자의 경우 국가가 정한 표기법 사용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로마자표기법은 자료를 찾는 방법 즉 調查道具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회기간은 진실로 交換과 交流의 한 주일이었다. 본인과 같은 서양지역사서에게는 동양지역동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提案을 발표하기에 앞서, IFLA의 UBC프로그램의 견지에서 Oda씨의 논문 한 귀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UBC는 서양지역간 아닌 國家相互間 圖書館協同에 의해서 실현될 것이다.” IFLA 프로그램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동양지역동료의 협조가 없어서는 안된다. 대회기간 중에 한 회의에서 의장이 빼적거리리는 바퀴와 기름장통의 直喩를 들었다. 우리는 빼적거리어서 기름칠 할 장소를 알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과업에는 기름칠해 달라고 “빼적거리리는” 혹은 “빼적거리고 있는” 동양지역사서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제의하는 바이다.

## 提案 및 決議文

### 提 案

이번 서울大會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의를 통하여 앞으로 취할 행동에 관한 提言과 勸獎事項이 많이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성격의 淸 사항도 있었으며 또 매우 기술적이거나 실용적인 것도 있었다.

IFLA본부에 제출된 11개 항목의 提案은 다음과 같다.

1. 東洋國家들의 圖書館發展을 淸하기 위하여 CON SAL(東南亞圖書館人大會)과 유사한 東洋地域 全體를 포함하는 圖書館人 組織體 構成을 提議한다.
2. 東洋의 公共圖書館奉仕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東洋 公共圖書館에 맞는 基準을 東洋地域의 圖書館人들이 淸정할 淸을 提議한다.
3. 東洋地域에서 出版되는 圖書에 대한 淸報取得의

어려움을 淸안할 淸 東洋出版物淸報를 淸공할 수 있는 東洋地域센터의 淸립을 提議한다.

4. 東洋資料 淸用者들의 淸려움을 淸기 淸하여 東洋의 淸版者들은 淸書名과 함께 淸文書名을 淸가하여 東洋人 아닌 淸用者들로 淸여금 새로운 淸版物 淸利用이 淸이하도록 淸할 淸을 提議한다.
5. 世界出版物普及(UAP)은 淸國家 및 淸國際圖書館相互 淸貸借 淸業務의 淸擴大를 淸뜻한다. 따라서 淸貸借 淸條件을 淸명시하는 淸國際貸借規則의 淸제정을 提議한다. 이 淸規則에는 淸각 淸도서관의 淸貸借 淸可能 및 淸不可能한 淸資料의 淸種類를 淸명시하도록 淸하여야 淸한다.
6. 英美目錄規則(AACR)이 淸改正되고 淸있는 淸이때에 淸이 淸規則의 淸編者들은 淸AACR의 淸國際的 淸使用을 淸淸안하여 淸특히 淸東洋出版物에 淸영향을 淸줄 수 淸있는 淸規則을 淸만들 淸것을 提議한다.
7. 國際目錄基準에 淸있어서 淸東洋資料取扱과 淸國際標準

書誌記述法(ISBD)制定에 東洋出版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대표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ISBD記述法의 特定地域 資料部門에서 木版本과 卷子本도 취급할 것을 提議한다. 本記述法(ISBDs)에 명시된 地域은 特定資料의 特殊性을 나타내며 이것은 모든 形態의 文字에도 擴大될 것을 提議한다.

8. 東洋圖書의 卷末刊記 사용은 더욱 개발되어야 하며 여기에 分類番號 같은 情報를 첨가하여 出版物 內目錄作成(CIP)으로 확대시킬 것을 提議한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CIP基準도 고려되어야 한다. 東洋圖書의 編目에서는 卷末刊記를 標題紙보다 우선적인 目錄情報의 出處로 할 것을 提議한다.
9. ISBDs의 다른 말 翻譯에 있어서 특히 左行筆記法을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本記述法에서는 이러한 언어로 된 出版物의 著錄에 대하여 反向句讀點 使用을 허용할 것을 提議한다.
10. 韓國大會가 成功으로 끝난 것을 고려할 때 IFLA 執行委員會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類似한 會議 組織 및 이를 勸奨할 것을 提議한다.
11. 모든 나라는 國家發展計劃에 圖書館發展計劃을 반영시킬 것을 提議한다.

### 決議文

IFLA Regional Group for Asia의 J. Soosai의 議長은 IFLA 本部에 아래에 적은 決議文을 제출했다.

1. 東洋地域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IFLA 서울大會의 광복할 만한 成果와 地域 및 國際圖書館協同에 공헌한 비에 비추어, IFLA는 유사한 地域大會를 조직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할 것을 권장한다.
2. 서울大會는 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國家資源으로서의 圖書館의 重要性을 인정하여, 모든 국가의 정부가 調整된 國家圖書館體制의 計劃, 財政 및 體系的 開發을 優先的 考慮에 넣을 것을 권장한다.
3. 서울大會는 IFLA가 끊임없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問題解決과 특히 國家發展綜合計劃에 포함된 國家情報奉仕機構(情報, 圖書館, 古文書奉仕)의 規定, 計劃 및 設立을 위하여 유네스코 및 기타 基金 機關을 통한 支援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이어서 Soosai 議長은 IFLA를 대신하여 聲明書를 발표했다.

### 聲明書

IFLA 會長 및 執行委員會는 大韓民國 政府에 대하여 祝賀와 感謝의 人事를 보내며, 특히 韓國圖書館協會가 東洋地域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IFLA 서울大會를 훌륭하게 組織한데 대하여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수행할 專門課業에 항상 成功이 뒤따라기를 바라는 바이다.

### 所感文

Heihachiro Suzuki

日本國立議會圖書館 副館長

東洋地域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IFLA 서울大會에서, 본인은 日本代表를 대신하여, 이번 大會가 成功으로 끝난데 대해 진심으로 祝賀를 보냅니다.

우리는 서울大會가 韓日兩國 圖書館 協同을 더욱 강화할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도서관이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번 大會는 東洋地域 司書職의 發展에 자극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東洋地域 圖書館活動의 特異性이 東洋地域 代表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토론했었던 사실에 비추어, IFLA가 앞으로도 이 지역의 圖書館問題에 대하여 진지한 關心을 가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Maenmas Chavalit

泰國國立圖書館長

CONSAL 執行委員會와 全世界의 參加代表를 대신하여 大韓民國政府, 韓國圖書館協會 및 IFLA 執行委員會에 대하여 IFLA世界大會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데 대해 感謝를 표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동쪽에 東洋이 있고 서쪽에 西洋이 있어 이들은 결코 만나지 못하리라는 말이 있으나, 韓國同僚들은 이 大會를 통해서 이 말이 이제는 정말 역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大會에서 나타난 友好的인 協同은 國際社會의 構成員으로서 우리의 未來에 밝은 전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든 參加代表를 대신하여 다시 한국동료에게 祝賀를 보내며 한국에 번영과 평화와 행복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